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창작 활성화 지원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

‘창작 활성화 지원’ 유형에서는 장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 및 발표 기회 마련이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장애인 당사자성에 의거한 창의적 예술 활동 여부, 예술적 수월성, 그 예술 수행이 장애인의 존엄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본 사업을 통해 단체(개인)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견인하는 역량 강화로 귀결 될 수 있는지, 예술 활동의 귀결이 구체적인 작품성이 지닐 수 있는지를 우선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창작 활동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재한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나 관행적 반복을 취하는 사업, 전문성이 제시되지 않고 사업내용이 모호한 사업 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연 분야에서 장애인의 정체성, 고유성을 담아내는 다양하고 참신한 레퍼토리가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장애인 예술가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창작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학]

신청 작가(단체)의 작품 창작 역량, 작품의 완성도,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성이 우수한 사업과 문학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창작 활성화 지원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문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시대상을 실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작품의 대다수는 우수한 작품성과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은 장애·비장애를 넘어선 고독한 개인의 창작물이니 만큼 그에 따른 성과를 당장 가늠하기 힘들나 선정된 분들이 아름다운 책을 출간하여 장애인 문학 예술 활동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유형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 창작을 지원하여 장애인 단체와 개인에게 보다 나은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하여 검토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심사의 주안점은 예술성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체의 경우 공모전이나 아트페어 형식의 지원신청서가 많았으며 작년 자료를 비교하여 보니 개인 작가들의 신청이 눈에 띄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체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진행한 협회전이나 아트페어 형식의 전시 기획이 대다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시장이나 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원신청서에 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공동체가 모여 뜻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취지에 동감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개인전의 경우 각각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양식을 표현하거나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시선을 넘어 훌륭한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개인전 기획이 많아 심사위원들은 개인전 선정에 비중을 높였습니다. 선정된 단체와 예술가분들의 완성도 높은 전시 프로젝트를 기대해 봅니다.

[음악, 전통예술]

- 선정된 사업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비장애 예술가 협업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예술가의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장애예술가 중심으로 활약할 단체, 혹은 장애예술가들의 참여를 높여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한 단체
- ② 꾸준한 활동을 토대로 '지속성' 유지는 물론,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개발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꾀한 단체
- ③ 현실적인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의 기획과 집행에 신뢰를 준 개인/단체
- ④ 창작물에 관한 콘셉트, 창작 과정과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한 개인/단체

-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일종의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이나 모객을 통한 장애단체 초청 등 장애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과정도 공연 준비만큼 까다로우며 세심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꼼꼼히 세운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문화예술 향수 지원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

‘문화예술 향수 지원’ 유형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장애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담고 있는지, 장애인의 관객 참여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 있는지, 다른 지원 유형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형 및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유형과 변별되는 예술 향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의 우수성, 예술성뿐만 아니라 기획의 배경과 구성에 단체의 고민이 담겨 있는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는지 우선하여 심사하였으며 장애를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나 장애를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학]

문화예술 향수 지원 유형의 문학 분야에 지원한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문학 향수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실적과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에 있는 만큼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각예술]

‘문화예술 향수 지원’ 유형의 ‘시각예술’ 분야는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 신청 사업은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심도 깊은 고민을 담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주셨으나 다수의 신청서 내용이 공연, 미술,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는 행사성 사업이거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다시 지원 사업의 형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본 사업의 경우 기획이 다소 거칠거나 예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자(단체)의 주체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철학적 고민이나 심미적 태도가 두드러진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자(단체) 여러분께서도 지원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전통예술]

- 심의 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예술에 대한 경험은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단체
- ② 현실적인 예산을 작성하여 실행계획에 대한 신뢰감을 준 단체
- ③ 거점 지역을 토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단체.
- ④ 주제나 특정 콘셉트 없이 무분별한 옴니버스형 공연이 아닌 부각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주제와 소재 하에 잘 정련되고 수집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단체

-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의 음악 분야는 예산이 비교적 크고 비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원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부족하며 장애예술에 관하여 참조가 될 만한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없다고 보여졌고 이러한 사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지원신청서의 대부분은 자생적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피교육생인 경우가 아직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예술 활동의 저변이 아직 광범위 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유형도 음악, 사진, 서예, 풍물,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많은 비중이 인건비와 사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나 오래 활동한 동호회나 자조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공연 등이 더 활성화 되도록 예산 집행 용도의 다변화와 이를 인정해주는 폭도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로 다양한 예술 활동 의지와 지속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단체로 나눠 총 124개 단체가 지원하였는데 많은 단체들이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나 기타 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으로 제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 관련 사업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신한 기획을 제안하거나 이 분야의 연구 과제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장애 문화예술 교육을 꾸준히 수행해온 단체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자 하였으며 단순 문화예술 발표 행사나 특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 국외 리서치 활동 지원

올해 처음 신설된 '국외 리서치 활동 지원' 유형은 장애예술가의 우수 장애인 예술 축제 및 행사, 아트페어 등의 연수 및 조사 기회를 통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외 리서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조사 활동 방법 등을 놓고 심사위원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리서치 대상 국가는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이었으며, 국외의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에 직접 참관하는 한편, 국외 장애·비장애 예술가에 대한 기초적인 인터뷰 등 리서치 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신청되었으나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 실제 신청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단순 행사 참관 등을 위한 사업 및 국외 행사에 대한 기초 조사나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계기로 향후 국내 장애인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가(단체) 간의 활발한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신청자(단체)의 예술적 역량 및 활동 실적, 사업의 독창성, 해외파트너와의 상호 협력체계(상호 초청 여부) 및 해외파트너의 사업 적합성과 신뢰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을 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한편, 신청 예산의 현실 반영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국제교류 사업 특성상 예산의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겠으나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통하여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해외에 직접 소개하고, 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국내에 소개되어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